5주 2020년 동계방학 묵상지

이름:_____ 학번:_____

1월 11일 월요일	<말씀묵상>	시 85-87

• 내용요약: 85편은 바벨론 포로귀환을 배경으로 한 시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1-3절) 동시에 거칠고 황량해진 이스라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사는 간구(4-7절)와 간구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기쁨(8-13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6편은 시편 제3권(73-89편)에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시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은 신앙의 백전노장이었다. 본시에서 그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고백한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했고(1-7절),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으며(8-13절)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했기 때문이다(14-17절). 8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성전은 지었으나 자신들의 보잘것없은 현실에 낙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위해 지은 시이다.
‣ 질문: 다윗이 모든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86편)
‣ 생각하기: 다윗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무이 하시며, 홀로 하나님되심을 고백했다. 이런 신앙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

1월 12일 화요일	<말씀묵상>	시 94-96

• 내용요약: 94편의 저자는 분명치 않지만 추측하건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던 암울한 때를 무대로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잔인하고 교만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지적(1-7절), 악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소개(8-11절),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사역에 대한 언급 (12-23절)등이 소개되고 있다. 95편은 성전예배에서 사용된 여호와 경배의 찬양시다. 시편 95-100편이 이같은 찬양시의 형태에 속한다. 경배에로의 초청, 경배할 이유(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경배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불복자를 향한 경고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96편 역시 하나님을 창조주(5절)로 묘사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7-110절), 그 영광스러움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고 있다(11-13절).
‣ 질문: 시편 95-100편은 무엇이라 불려지는가?
‣ 생각하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1월 13일 수요일	<말씀묵상>	시 97-99

• 내용요약: 97편도 여호와의 통치와 그 심판을 찬양하는 시이다. 96편이 여호와의 인자한 심판을 강조한 시라면 본시는 여호와의 엄위하신 심판을 강조한 경건한 두려움의 시이다. 시인은 심판 주 하나님의 장엄하신 영광을 노래한 후(1-6절), 그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두려움으로(7절), 의인에게는 기쁨으로 임할 것임을 노래했다(8-12절). 98편 역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한 찬양시다. 왕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역사(1-3절)를 찬송할 것과 장차 베푸실 공의의 심판(9절)을 찬양할 것을 온 땅의 모든 백성(4-6절)과 모든 피조물(7-8절)에게 권면하고 있다. 99편 역시 우주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께 영광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시 전체에 걸쳐 통치자 여호와의 거룩성이 강조되었다(3, 5, 9절). 아울러 언약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공평(4-5절)과 인자(6-9절)가 묘사되었다.
‣ 질문: 동일한 찬양시 이지만 96편과 97편의 차이는 무엇인가?
‣ 생각하기: 하나님의 임재(편재성: 어디든 계심)은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을 의인에게는 기쁨과 구원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있다.

1월 14일 목요일	<말씀묵상>	시 100-102

• 내용요약: 100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들(95-100편) 중 마지막 결론짓고 있는 시로서 간결하고 압축된 표현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노래한 기쁨과 감사의 시이다. 1-3절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이, 4-5절은 성전의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다. 101편은 치세에 임하는 다윗의 통치철학이 표현된 군왕시(君王時)이다. 다윗은 신정국가 왕답게 그러한 치세의 기본원리를 하나님의 2대 속성에서 찾는데 곧 인자(사랑)와 공의이다. 전반부는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고(1-4절), 후반부는 신하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이다(5-8절). 메시야의 예표로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엿보이는 시이다. 102편은 민족의 아픈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비탄시로 배경은 바벨론 포로시대로 추정된다.
‣ 질문: 하나님의 대표적인 2가지 속성은?(101편)
‣ 생각하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힘있는 자의 간구만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겸손한 심령의 호소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102:7절).

1월 15일 금요일	<말씀묵상>	시 103-106

• 내용요약: 103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 중 그 어는 것보다 뛰어난 영감이 넘치고 문학적 가치가 탁월한 시이다. 시인은 감사와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내용을 분류하면 찬양에로의 초대(1-2절) 찬양받으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3-19절) 천사와 성도와 만민을 향한 찬양의 권면(20-22절)으로 구성되어있다. 104편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노래한 4대 창조시(8. 19. 29. 104)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에 대한 감탄과 경이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회화적으로 묘사되었다. 105편은 소위 역사시(78. 105. 106) 라 불려지는 시 가운데 하나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찬양시이다. 본시가 맨 끝 부분에 '할렐루야' 라는 말로 끝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106. 111-113. 117. 135. 146-150)이라 부른다. 106편은 이스라엘의 과거역사를 돌이켜 보는 가운데 범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시다.
‣ 질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노래한 4대 창조시는?
‣ 생각하기: 자연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본적이 있는가?

1월 16일 토요일	<말씀묵상>	시109-111

• 내용요약: 109편은 악인들에게 애매하게 핍박당하고 있는 의인이 자신의 곤고와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악인을 향한 저주가 강하게 표현된 비탄의 저주시다. 하지만 시인의 저주는 개인적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실현을 호소하는 차원이다. 악인의 악행과 저주의 기도(1-20절), 의인의 고통과 구원의 기도(21-31절)로 구성되어있다. 110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실 메시야의 의로운 통치와 심판에 관한 예언시이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야의 통치(1-4절), 세상을 권능으로 심판하실 메시야(5-7절)에 관해 묘사되어 있다. 본시는 신약성경에 빈번히 인용될 만큼(마22:41-45; 행2:34; 히1:14, 5:6, 7:17절) 메시야의 예언시로 유명하다. 111편은 이스라엘의 중요절기들(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등)에 불러지던 송축시이다. 본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인한 행사를 참으로 밝고 힘찬 분위기의 시이다.
‣ 질문: 신약성경에 자주인용되는 시편은?
‣ 생각하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사모할 것은 바로 메시야의 의로운 통치가 하루 속히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다.

1월 17일 일요일	<말씀묵상>	시112-114

• 내용요약: 형식(이합체. 매 행의 첫음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추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 111편의 자매시라 불리는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받을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첫째, 의로운 자의 정의(1-5절), 둘째, 의로운 자가 누릴 축복(6-10절)이다. 우리는 본시에서 정녕 성경이 가르치는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 113편은 유대전통에 따라 할렐루야 시편(113-118편)의 첫 시로 불리는 유대인들의 주요 3대 절기(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배시에 즐겨 불리워졌다. 이런 전통에 따라 오늘날도 서구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본시를 즐겨 부른다. 내용은 크게 삼분된다. 첫째, 주를 찬양하도록 권면함(1-3절), 둘째, 스스로 낮아지신 여호와(4-6절), 셋째, 모든 인생의 질고를 친히 체휼하신 하나님(7-9절). 따라서 본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시라 할 수 있다. 114편은 히브리 시의 박진감 넘치는 특강을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는 시이다. 내용은 출애굽 당시 자연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찬양과 감사다.
‣ 질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노래한 시편은?
‣ 생각하기: 시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113:1-3절).